

국경없는의사회 2017 활동보고서

MSF KOREA

ACTIVITY
REPORT
2017



국경없는의사회 현장

국경없는의사회(MSF)는 국제민간단체로서 주로 의사 및 의료업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단체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도 열려 있다. 단체의 모든 구성원은 다음의 원칙을 지키는 데 동의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고난에 처하거나, 자연재해, 인재 혹은 무력 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인종, 종교, 혹은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돕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보편적인 의료 윤리를 따르며, 누구나 인도주의적 구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준수하고, 활동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

구성원들은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영향력으로부터 철저한 독립을 유지한다.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수행하는 임무의 위험성과 부담을 인지하고, 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외에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경없는의사회가 수행한 주요 활동 개요와 한국의 후원금이 사용된 10개국(이라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수단, 시리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지면 사정상 한국의 후원금이 사용된 대표적인 활동에 관한 설명이며, 해당 국가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에 사용된 지역의 명칭과 경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경없는의사회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 2017활동보고서

한 해를 돌아보며	04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지역	06
한눈에 보는 2017년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08

특별 주제 보고

우리가 외상 수술을 제공하는 곳	10
2017 콜레라 대응 활동	12

국가별 활동

이라크	1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6
남수단	17
콩고민주공화국	19
키르기스스탄	20
미얀마	21
수단	22
시리아	23
방글라데시	24
나이지리아	26
현장에서 온 편지	28
2017 재정 보고	30
국내 후원 개발 활동	32
국내 커뮤니케이션 활동	34

표지사진

마취과의 김지민 활동가가 총상을 입은 환자와 상담하고 있다. ©Laurie Bonnaud/MSF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0615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3 애플트리타워 9층
전화 02-3703-3500
팩스 02-3703-3502

 www.msf.or.kr
 facebook.com/msfkorea
 @msfkorea
 @msfkorea
 youtube.com/msfkorea
 @국경없는의사회
 blog.naver.com/msfkr

발행처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발행일 2018년 7월
발행인 티에리 코펜스
편집기획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커뮤니케이션국
디자인 슬로워크

한 해를 돌아보며

국경없는의사회를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께 2017년 활동 보고를 전해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보고서를 통해 소개되는 것처럼, 시리아 국경에서 시작되어 북아프리카, 지중해, 유럽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이주 루트, 다제내성 결핵처럼 변해 가는 질병의 양상, 콜레라나 홍역 등의 전염병 창궐,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의 분쟁 현장 등 우리는 다양한 현장 상황에 맞게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7년: 분쟁, 대규모 이주, 질병 창궐의 한 해
2017년 미얀마,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중앙공) 등지에서는 민간인을 겨냥한 폭력이 날이 거세졌습니다. 또한 시리아, 나이지리아, 예멘에서도 폭력의 기세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가 사망과 부상, 각종 손실 등 상당한 대가를 치렀고, 수백만 명이 살던 곳을 떠나 안전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방글라데시 쿠투팔롱에 위치한 국경없는의사회 소아과병동에서 급성 폐렴을 앓고 있는 8개월의 모하메드가 치료를 받고 있다.
©Paula Bronstein/Getty Images

국경없는의사회는 소외된 민족인 로힝야족의 인도적 필요에 대응해 미얀마에서 수년간 활동해 왔습니다. 2017년 8월 미얀마군이 표적 공격을 자행하면서 66만 명에 이르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고, 이에 따라 국경없는의사회도 대응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사람들의 사망률을 회고적으로 추산해 본 결과, 로힝야족을 겨냥한 극심한 폭력사태로 한 달 만에 최소 6,700명의 로힝야족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이지리아 보르노주에서는 계속된 폭력으로 200만 명이 뿌리내리고 살던 터전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2017년 1월, 국경없는의사회가 의료 시설을 운영하던 란(Rann) 지역 피난민 캠프에 공습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경없는의사회가 고용한 현지 노동자 3명을 포함해 최소 90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치안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도 국경없는의사회는 보르노에서 긴급 지원을 실시해 캠프 곳곳에서 영양, 의료, 구호품, 식수 위생 등을 지원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또한 예멘, 시리아, 이라크의 무력 분쟁 속에 시달리는 지역민도 지원했습니다. 2017년에도 예멘 전쟁은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직접적인 외상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예멘의 의료, 식수, 경제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고 연료, 식량, 의약품의 수입 제한이 계속되면서 콜레라, 디프테리아 등 치명적인 전염병이 나타났습니다.

남수단, 민주콩고, 중앙공 등 국경없는의사회가 의료 지원을 해 온 나라들에서는 장기간 분쟁이 이어졌지만 이에 대한 보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사실상 폭력과 분쟁 속에 수백만 명이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200만여 명이 주변국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 남수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커지는 난민 위기 지역으로, 우간다, 민주콩고, 에티오피아, 수단 내 국경없는의사회 대응 활동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빈곤, 폭력,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곳을 찾아 위험천만한 루트를 선택하는 이주민난민을 위



남수단 올드 파각 병원에서 산전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Frederic NOY/COSMOS

해 국경없는의사회는 꾸준히 지중해에서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자국 해안으로 난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유럽 국가들의 억제 정책으로 인해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끊임없이 알렸습니다.

대대적인 콜레라 창궐은 예멘뿐 아니라 동아프리카에서도 맹위를 떨쳤습니다. 민주콩고에서는 지난 2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콜레라 창궐이 일어나 55,000명이 피해를 입었고 1,190명이 사망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전체 감염자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한편 민주콩고 동부 곳에서는 홍역으로 여러 지역사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 8개월 만에 국경없는의사회는 14,0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을 치료했고, 100만여 명의 아동들에게 예방접종을 제공했습니다.

여전히 국경없는의사회는 세계 곳곳에서 결핵 치료를 제공하는 최대 비정부 단체입니다. 우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즈베키스탄에서 보다 짧고, 효과적이며,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치료법을 시범적으로 수행하는 등 여러 파트너 단체 및 현지 보건당국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약제내성 결핵 치료법 개발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2017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민주콩고 동부,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여러 국가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총 30만여 회의 출산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무상 지원을 받으며 출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복잡한 세계는 시시각각 변해 가지만 국경없는의사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적합하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는 직원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재정적, 기술적, 정치적 그 밖의 여러 방면으로 우리의 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을 의지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자들과 현장 팀들 그리고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소 직원들을 대신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살리고 우리 환자들의 삶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소중한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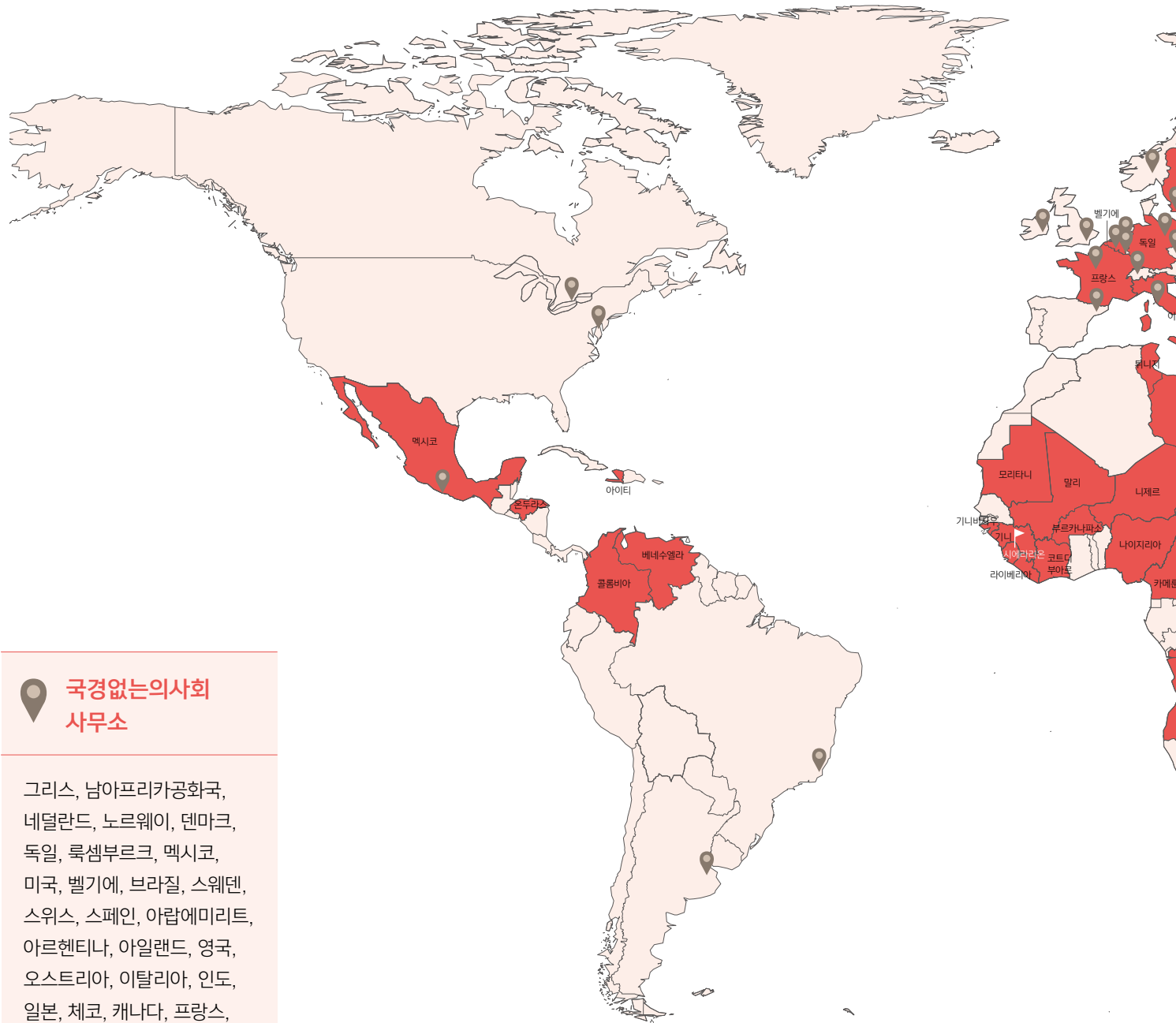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감사합니다.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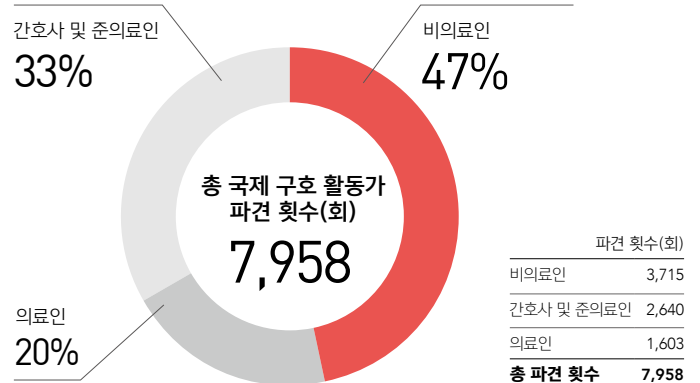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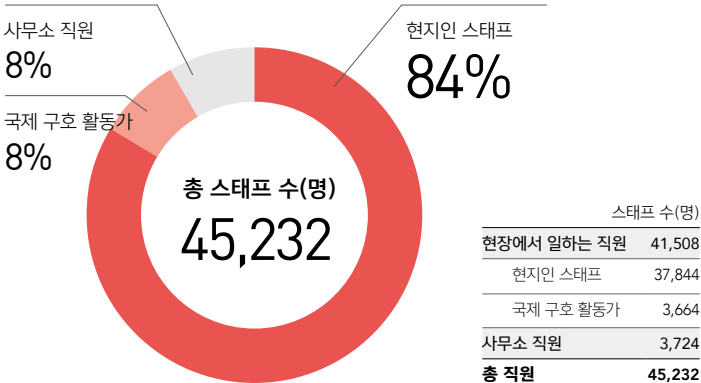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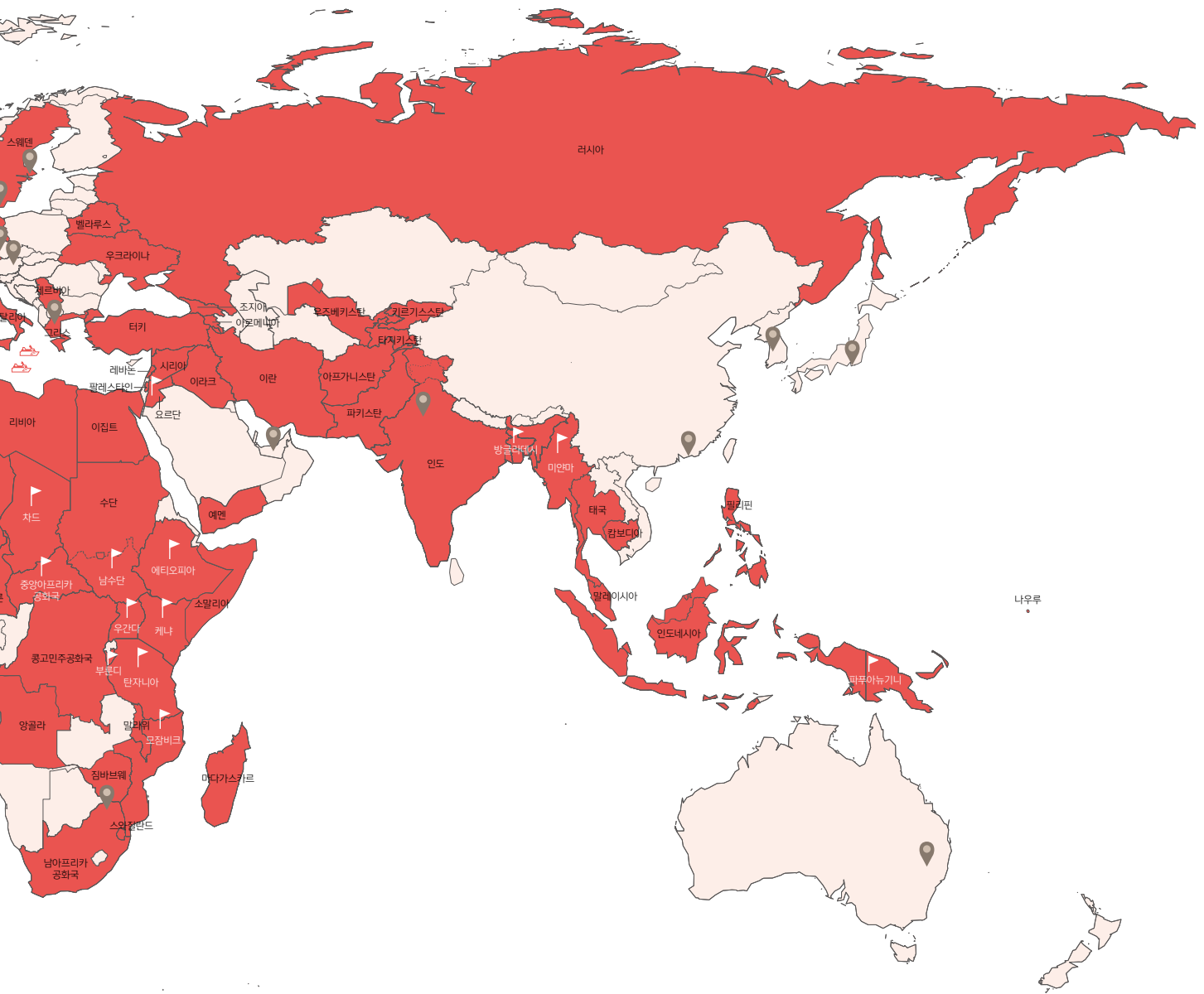
국경없는의사회 사무소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멕시코, 미국,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인도, 일본, 체코, 캐나다, 프랑스, 한국, 호주, 홍콩

국경없는의사회 스태프

전체 국경없는의사회 스태프의 대다수(84%)는 활동하는 현지 국가에서 채용되었습니다. 전 세계 28개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총 인력의 8%를 차지합니다. 총 국제 구호 활동가 수는 파견된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7년 한국인 구호 활동가

2017년 총 15명의 한국인 구호 활동가가 전 세계 인도주의 위기 현장 14개국, 19개 프로젝트에서 활동했습니다.



김승수 행정가 | 우간다, 에티오피아
 김아진 행정가 | 탄자니아
 김태영 행정가 | 모잠비크, 남수단
 남상욱 로지스티션 | 우간다
 송경아 간호사 | 남수단, 시에라리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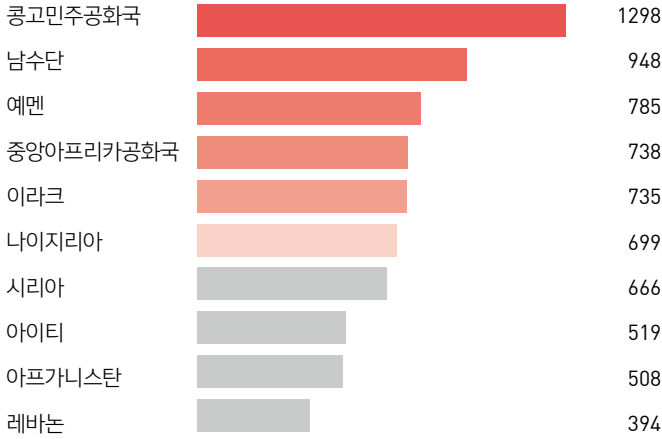
오룡진 행정가 | 차드
 유서희 내과의 | 요르단
 유한나 보건홍보 매니저 | 파푸아뉴기니
 이선영 산부인과 | 케냐
 이호민 마취과의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재현 정형외과의 | 부룬디
 임희정 약사 | 방글라데시
 정형주 소아과의 | 시에라리온
 조기태 행정가 | 미얀마
 최정윤 약사 | 방글라데시, 우간다

한눈에 보는 2017년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활동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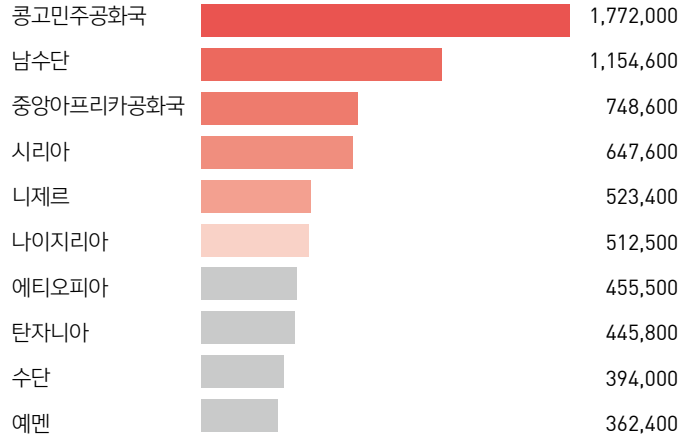
가장 많은 프로그램 비용이 쓰인 지역 (단위: 억 원)



위 10개국에 대한 총 프로그램 비용은 7291억 원으로 국경없는의사회 현장 프로그램 총 비용의 53%를 차지합니다.

외래환자 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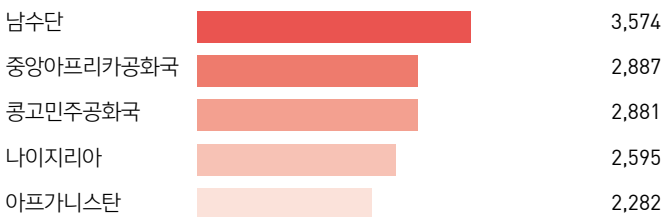
외래환자 진료 수가 가장 많은 지역 (단위: 회)



외래환자 진료 횟수를 기준으로 전문의 상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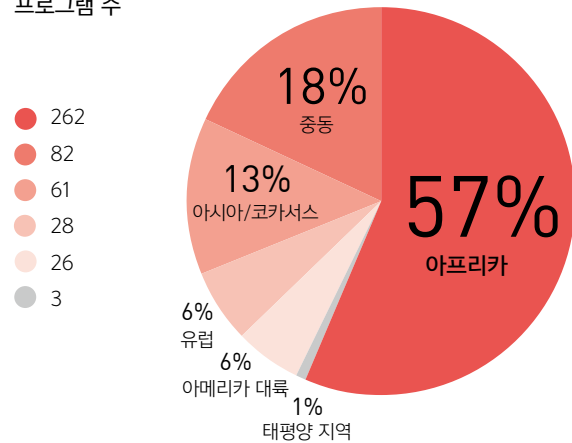
구호 활동가

가장 많은 구호 활동가가 일한 지역 (단위: 명)
풀타임 정규 직원 기준



현장활동 지역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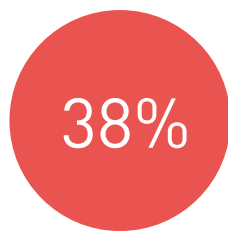
프로그램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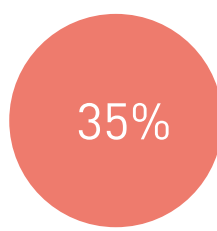
현장활동 환경

프로그램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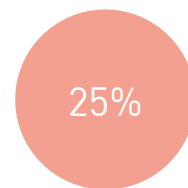
- 176
- 163
- 117
- 6



안정된 지역



무력 분쟁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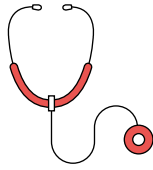
내부 불안정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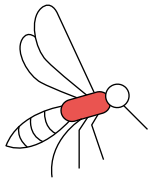
분쟁 이후 지역

2017 주요 활동 하이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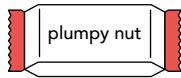
주요 활동 하이라이트는 직접 활동, 원격 지원, 협력 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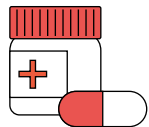
외래환자
외래환자 진료
10,648,300회



말라리아
말라리아 환자 진료
2,520,600회



영양실조
입원환자 치료식 프로그램에 입원한
중증 영양실조 아동
81,3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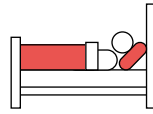


*2017년 말 기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1차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01,300명** | 2차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1차 치료 실패) **15,4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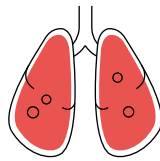
성폭력 피해자 치료
성폭력 피해로 의학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
18,8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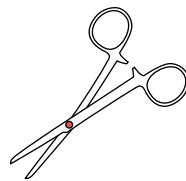
입원환자
입원환자
749,7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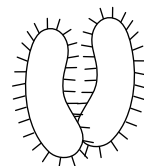
출산
제왕절개를 포함한 출산 산모
288,9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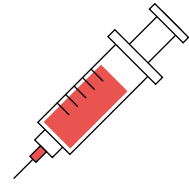
결핵 환자
1차 약제로 치료를 받은 결핵 환자 **18,500명** | 2차 약제로 다제내성 결핵 치료를 시작한 환자 **3,600명**



외과적 치료
마취하의 절개, 적출, 조직 축진 및 봉합이 이루어지는 주요 외과적 처치를 받은 환자
11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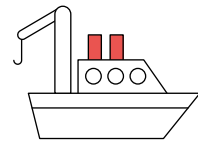
콜레라
콜레라 치료를 받은 환자
143,100명



홍역 예방접종
홍역 발병에 대해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2,095,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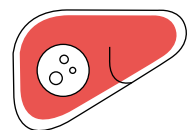
뇌수막염 예방접종
뇌수막염 발병에 대해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886,300명



난민·이주민 구조
해상에서 구조돼 구호 지원을 받은 난민·이주민
23,900명



정신건강
정신건강 개인상담 **306,300명** | 정신건강 집단상담 **49,800회**



C형 간염 치료
C형 간염 치료를 받은 환자
5,900명

우리가 외상 수술을 제공하는 곳

사람들이 주목하는 쟁점 지역,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전쟁의 현장

모하나 아미르타라자 박사

분쟁 지대의 민간인에게 있어 폭탄은 몇몇 개인을 넘어 수많은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장본인입니다. 시리아 라카(Raqqa) 포위에 대한 인도적 대응의 일환으로 국경없는의사회가 탈 아비야드 병원에서 외상 수술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을 무렵, 첫 환자 중 한 명은 11살쯤 된 소녀였습니다. 소녀 가족이 학교에 피신해 있던 중 급조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소녀 곁에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36시간 만에 삼촌과 어머니가 소녀를 찾아왔습니다. 다른 형제 2명은 폭발 당시 부상을 입고 다른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프로젝트 실시 초반에는 분쟁으로 인한 급성 부상과 오래 방치된 부상을 몇 주 만에 처음 치료 받은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 추락으로 인한 골절, 맹장염 등 여느 지역사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술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우리는 수술 대응 활동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라카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폭발물을 모두 제거하기도 전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후 매우 분주한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던 병원이 그 지역 유일한 민간인 지원 시설이었기 때문에 병원은 이내 폭발 환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때 들어온 부상자는 거의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데려오기 전에 먼저 혼자 돌아와 집과 땅을 살펴본던 청년들은 그곳에 매립돼 있던 무기를 아슬아슬하게 피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문에 지역 공동체는 노동 연령 남성들과 가장들을 잃어버리는 또 다른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그저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시리아 북부에서 진행하는 국경없는의사회 외상 대응 활동은 시리아 남부 프로젝트, 예멘, 이라크



남수단 벤티우의 국경없는의사회 수술실. ©Peter Bauza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폭발 부상, 고속 발사체로 인한 부상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분쟁 배후의 여러 당사자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대대적인 군사 자원을 쓰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원을 하려면 소생술, 중환자 관리, 화상 치료, 복잡한 복부, 혈관, 정형외과 부상 치료를 할 만한 전문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과 지원은 기술적 측면에 더해 많은 물리적 어려움도 따릅니다. 전투가 계속되는데 구급차도 없는 상태에서 파괴된 도로 위로 부상 환자를 곧장 병원까지 데려오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시리아, 예

멘 등지에 외상 안정화 지원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선 환자들에게 응급 처치를 실시하고 부상 정도를 확인한 뒤 환자들을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런 나라들은 좋은 의료를 제공했던 과거 이력이 있고 살균, 각종 장비, 수술 후 치료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구축해 운영하려면 숙련된 현지인 직원들도 꼭 필요합니다.

대중에게는 중동 분쟁이 더 낯익지 모르지만, 국경없는의사회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세계 곳곳의 전쟁 속에서도 외상 수술을 제공합니다. 2017년 들어 전투가 늘어났던 남수단에서 국경없는

의사회는 비교적 작고 외진 지역에서 대규모 사상자의 상태를 분류했던 랑기엔 프로젝트에서부터, 완전한 외과 지원을 실시했던 벤티우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대응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남수단과 같은 곳에서 주로 나타나는 부상은 총상과 칼, 마체테(벌목 칼), 창에 찔린 부상입니다. 이를 통해 전쟁에서 다양한 무기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상 형태가 덜 복잡하다고 해서 외상 수술의 원칙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실시하는 적극적인 소생술, 손상 통제 수술, 자주 부상 부위 씻어내기 등의 원칙은 늘 지켜야 합니다. 중앙 아프리카공화국(중앙공)은 상황이 너무 불안정해서 적절한 자원을 가지고 적시 적소에서 활동하기가 까다롭습니다. 2017년 우리는 중앙공 밤바리에 위치한 보건부 병원에서 새 외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폭력사태가 격화돼 외과 직원과 의료 장비 등 모든 자원을 철수시켜 중앙공 내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던 대응 활동에 투입했습니다. 특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방기(Bangui)의 외상 프로그램으로 이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진 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수십 년간 방치된 의료 시스템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남수단이나 중앙공 외진 지역에 응급 수술 프로그램을 여는 것은 중동의 기존 병원을 지원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각종 장비와 의약품, 생체의학 장치들을 전부 가져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수술 천막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현지인 직원은 외과 지원 능력을 확대하도록 돕는 큰 자산입니다. 우리는 수년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음웨소 보건부와 성공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훈련받은 헌신적인 콩고 의사들이 외과 활동 다수를 지원했고, 국제 활동가들은 직원 교육과 지도·감독을 담당했습니다.

폭력사태의 영향은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외상의 여파를 치료하려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대응 활동이 필요합니다. 국경없는 의사회 외상 수술팀에는 의사, 외과의, 마취과의, 간호사 등 부상 환자를 직접 대하는 사람뿐 아니라 정신건강 담당자, 물리치료사, 로지스티션, 행정가도 있습니다. 또한 통역가도 팀의 일원입니다. 이들은 언어를 옮길 뿐 아니라 우리가 활동 지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외상을 치료하는 외과의이자 인도주의 활동가로서 우리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려고 늘 노력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시리아 등의 국가와 더불어, 대중의 인식 밖에서 고통받는 중앙공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곳에서 폭력이 가정과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환자들, 동료들과 함께 느끼면서 조금이나마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탈 아비야드 병원. 폭발물로 인해 환자는 다리를 잃었고, 위태한 상태에 빠졌다. ©Eddy Van Wessel



중앙공 브리아의 수술실. ©MSF

2017 콜레라 대응 활동

간단한 예방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지역사회 곳곳을 망가뜨린 콜레라

조안나 키난

알린 카엔도는 어떻게 하면 다섯 살 아들 아리스티드가 콜레라에 걸리지 않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손 씻기, 깨끗한 휴지 쓰기, 정수 처리된 물만 마시기, 과일과 채소는 씻어 먹기 등 집에서 모든 수칙을 지켰지만, 아리스티드는 결국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정수 처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서 집에서는 물을 정수 처리를 해서 마셔요. 하지만 아이들은 호숫가에서 놀다가 호숫물을 바로 마셔요. 아이들 끼리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는데, 길거리 음식은 비위생적일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은 과일을 따서 바로 먹어요. 제 아들이 병에 걸릴 것까지 위험이 있었던 거죠.” - 알린 카엔도

다행히 알린은 미노바에서 국경없는의사회가 운영하는 콜레라 치료센터로 아들을 데려와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미노바는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사우스 키부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알린의 거주 지역입니다.

수인성 세균 감염인 콜레라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했을 때나 오염된 표면에 직접 접촉했을 때에도 전염됩니다. 누구나 콜레라에 걸릴 수 있지만, 감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아무래도 가난한 이들, 깨끗한 물을 전혀 구할 수 없는 비위생적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콜레라는 심한 설사와 구토를 일으키며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목숨도 위협합니다. 하지만 사실 콜레라는 치료가 매우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처방이 간편한 경구용 수분 보충염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심한 환자들은 정맥 수액이 필요합니다. 여

하간 그 누구도 콜레라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2017년 민주콩고에서는 20년 만에 최악의 콜레라 유행이 일어나 26개 주 중 2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환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약 5만5천 명이 병에 걸린 것으로 보고되었고 1천여 명이 콜레라로 숨졌습니다. 12월 말까지 국경없는의사회는 전체 등록 환자의 절반을 치료했지만 콜레라 유행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멘도 유례없는 수준의 콜레라 발병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멘의 콜레라 발병은 4월에 시작되어 급속도로 퍼져 나가 수십만 명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콜레라 유행이 절정으로 치달던 6월,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은 예멘 전역에서 매주 11,000여 명의 환자들을 콜레라 치료센터에 입원시켰습니다. 37개 콜레라 치료센터와 구강 수분 보충 지원처에서 국경없는의사회가 치료한 총 환자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멘은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이미 심각한 피해를 겪었고 기반시설들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공중보건 종사자들은 1년 넘게 급여를 받지 못해 일 자리를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높은 실업률과 심각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의료 시설이 운영 중인 지역에서도 사람들은 교통비를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콜레라가 발병하자 위태롭던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으로 치달았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곳곳에서는 가뭄과 분쟁, 피난, 안전한 식수 위생 부족 등이 발병을 초래했습니다. 민주콩고의 대규모 콜레라 유행에 더해 국경없는의사회 팀들은 나이지리아, 차드, 케냐, 남수단 콜레라 발병에도 대응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보건 홍보팀은 환자와 간병인에게 콜레라 예방 수칙을 알려준다. ©MSF



알린 카엔도가 다섯 살 아들 아리스티드와 미노바 콜레라 치료센터에 와 있다. ©Marta Soszynska/MSF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주에서는 피난민 캠프의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여건으로 콜레라 발병 최적의 조건이 조성되었습니다. 8월에서 11월까지 국경없는의사회 팀들이 여러 콜레라 발병에 대응했지만, 이 지역에서는 치안 불안이 큰 문제가 되어 의료 활동이 매우 위험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차드 콜레라 발병 당시 국경없는의사회는 환자 1천 명을 치료하고 정수 처리 용품이 든 위생 키트, 20리터 짜리 물통, 비누, 담요, 모기장 등을 배급했습니다. 또한 콜레라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감염 예방법도 설명하는 활동도 실시했습니다.

2017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총 13개국에서 143,100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2016년 치료한 환자 20,600명의 7배에 달합니다. 다른 구호 단체들이 보다 신속히 대응에 나섰더라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지역(에티오피아 일대)에 속한 국가들에는 인력을 충분히 갖춘 병원, 보건 홍보 활동, 인식 제고 활동 등의 각종 자원과 깨끗한 물이 부족해 대응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멘에서는 치안 문제로 주로 국경없는의사회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던 곳에서 콜레라 대응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필요했던 의료 요구는 훨씬 더 컸습니다. 백신을 활용할 수 없어 가장 피해가 큰 지역에서 긴급 콜레라 백신 캠페인을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백신은 콜레라 발병 대응 활동에서 효과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과거 경험과 과학적 증거 자료를 통해, 1회 복용의 경구용 콜레라 백신이 안전하고 간편할 뿐 아니라 콜레라 유행기에 질병 확산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예멘뿐 아니라 콜레라 발병이 나타난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최상의 전략과 자원을 활용해 적시에 적합한 규모로 콜레라 발병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콜레라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대책과 도구와 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Iraq



모술 내 국내 실향민을 위한 난민캠프에서 피난민이 진찰을 받고 있다. ©Giulio Piscitelli

2017년 이라크 활동

 <p>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후원금 내역 1,831,587,222원</p>	 <p>구호 활동가 1,620명</p>	 <p>활동 계기 무력 분쟁, 국내 실향민</p>	 <p>주요 활동 1차 의료 지원, 성·생식 보건, 정신건강 지원</p>
---	---	---	--

2017년에도 이라크에서는 분쟁이 계속돼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천 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고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의료 시설 다수가 파괴되어 환자와 부상자들이 치료받을 곳을 잃었습니다.

비록 분쟁은 2017년 말에 잦아들었지만 이라크 내의 인도적 필요는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290만 명이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라크에서 대응 활동을 대폭 늘려 전쟁 부상자들에게 외상 치료와 응급 수술을 제공했습니다. 팀들은 또한 기본적인 의료와 영양 관리 프로그램, 모자보건 서비스, 만성질환 치료, 나아가 피난민과 기타 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신건강 지원도 실시했습니다.

분쟁의 타격이 가장 컸던 곳은 모술 서부였습니다. 교전선이 인구 밀집 지역을 관통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포위돼 있었고 수개월간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걸을 수 있는 부상자들만이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무사히 집을 나서서 진료소나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며칠을 기다

려야 했습니다. 9개월간 전투가 계속되면서 수천 명이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이 피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폭력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의료 시설 등 모술 서부의 기반시설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경없는의사회는 유연히 대처하며 변화하는 필요사항과 수시로 바뀌는 교전선에 맞춰 활동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먼저 모술 전투에 대비해 도시 북부에 야전 수술팀을 꾸렸습니다. 2016년 12월 모술 동부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국경없는의사회는 무하리빈 병원에서 활동을 시작해 외상, 산과, 그 밖의 긴급 환자들에게 중대한 의료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환자들의 긴급한 안정화 처치를 위해 교전선 인근에 선행의료지원처를 설치했습니다. 2017년 5월 말 국경없는의사회는 모술 서부로 진입해 한 학교에 선행의료지원처를 열었고, 나블루스 병원에 응급실, 수술실, 산과 병동을 마련했습니다. 몇 주간 교전선과 병원 사이가 2km도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외상 환자 수가 감소하자 병원은 산과·소아과 지원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경없는의사회는 9,421건의 긴급 환자에 대응했고, 455회의 외과

수술을 실시했으며 1,410건의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 469명에게 입원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2017년 말경 이라크의 피난민 수는 3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분쟁의 피해가 큰 지역들에서는 피난민들로 인해 의료 등 기본 서비스 지원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사실 이곳들은 현지 지역민들의 필요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모술 북부 줌마르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탈 마라크 병원 산부인과 진료소, 응급실, 소아과 입원 병동 운영을 지속했습니다. 팀은 성·생식 의료를 지원하고, 합병증을 앓는 환자들은 타 시설로 이송했습니다. 탈 아파르 지구의 소외된 공동체에는 이동 진료팀을 보내 비전염성 질환 치료를 포함한 1차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9월 쿠르드 국민투표와 그에 따른 국경 변동 후, 그전까지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지역이 갑자기 국경없는의사회 주마르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수가 급증했고, 국경없는의사회는 총 10,600회의 성·생식 진료를 실시하고 2,881건의 출산을 지원했습니다.

이라크 북동부 도미즈 캠프에서 시리아 난민을 위해 5년간 활동해 온 국경없는의사회는 11월에 모자 보건과 성·생식 보건 활동을 현지 보건 당국에 인계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도미즈 캠프에서는 1,232명이 넘는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바그다드 서부의 티크리트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알 알람 캠프의 피난민들에게 1차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피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자 국경없는의사회는 단계적으로 활동을 축소하는 한편 현지의 의료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바그다드 주에서는 아부 그라이브에 있던 피난민들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이들에게 제공되던 진료 횟수도 줄었고, 일부 활동은 7월에 보건부로 인계되었습니다.



다리와 복부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아동을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이 치료하고 있다. ©Alice Martins




응급의학과 의사 모하메드가 입원 치료센터에서 아동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Hussein Amri/MSF





모술 서부에서 가장 가까웠던 야전 외상진료소에서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 ©Alice Martins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2017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활동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후원금 내역
1,798,361,704원

 구호 활동가
2,887명

 활동 계기
의료 사각지대, 전염병 창궐

 주요 활동
1차 의료 지원, 성·생식 보건, 예방접종

2017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중아공)은 또다시 전쟁 속에 휘말렸습니다. 잦은 전투와 민간인을 겨냥한 잔인한 공격으로 인구의 약 15%에 달하는 688,000명이 피난을 떠났고, 주변국들에 머무는 중아공 난민 수는 54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연말에 다르자 비정부 무장 단체들이 중아공 내 16개 주를 장악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분쟁의 직접적인 피해로 지역민들은 의료, 식량, 물을 거처를 제대로 구할 수 없어 몹시 취약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즉결 처형 등 끔찍한 살인이

벌어졌고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도 이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중아공 내 10개 주에서 현지 지역사회와 실항민을 대상으로 외래 진료와 입원 진료를 지속했습니다. 바탕가포와 카보, 보길라와 보상고아(우함), 파우아(우함-팽데), 카르노트와 베르베라티(맘베레-카데이), 방가수(음보무), 제미오(오트-음보무), 밤바리(와카), 브리아(오트-코토), 알린다오(바스-코토), 은델레(바핑기-방고란), 음바이키(로바예) 등지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기본 의료, 특수 및 응급 의료, 산부인과, 소아과 서비스 등을 제공했습니다. 한 해 동안 직원들은 17,855회의 출산을 지원했고, 8,878회의 수술을 실시했으며, 총 748,563회의 외래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중아공 내 다른 여러 지역에서는 치안 불안이 높아진 데 반해, 맘베레-카데이는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베르베라티 병원 및 인근 여러 보건소에서 3년간 활동해 온 국경없는의사회는 이 프로젝트를 보건부에 인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수인계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중증 영양실조 아동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보건부 직원들을 훈련하는 등 보건부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9월 들어 국경없는의사회는 소아과, 산부인과, 생식 보건, 영양 지원 활동을 보건부에 넘겨주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이래로 국경없는의사회의 지원 속에 20,700명의 아동이 소아과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중증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5세 미만 아동 4,570명이 치료를 받았으며, 5,799명이 넘는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2017년 국경없는의사회는 파상풍 예방접종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신생아 파상풍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실시한 이 캠페인은 임신부, 가임기 여성 등 22,400여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진단검사 전문가가 혈액을 통해 HIV, 말라리아, 매독 등을 검사하고 있다. ©Borja Ruiz Rodriguez/MSF


남수단 South Sudan





의료진과 운전기사가 함께 환자를 아코보 병원으로 대피시키고 있다. ©Frederic NOY


2017년 남수단 활동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후원금 내역
984,482,272원

 구호 활동가
3,574명

 활동 계기
무력 분쟁, 전염병 창궐

 주요 활동
1차 의료 지원, 예방접종

 긴급 활동
말라리아 창궐

2017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콜레라, 말라리아, 홍역 등의 치명적인 질병에 취약한 남수단에서 전염병과 분쟁으로 인해 생겨나는 긴급한 의료적 필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존 의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1년 남수단 독립을 불러온 파괴적인 전쟁 때문에 남수단은 지금도 고군분투하며 갖가지 위기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터진 분쟁 이후로 수만 명이 살해당했고, 인구 3명 중 1명은 살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200만 명은 주변국들로 탈출했고 또 다른 200만 명은 국내 타 지역에 피난해 있습니다. 2017년에도 이어진 치안 불안으로 곳곳에서 구호 단체들의 활동은 날로 위협해졌습니다. 의료 서비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경없는의사회는 아곡(Agok), 마욘(Mayom), 아코보(Akobo) 등지에서 1차·2차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아곡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고자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이 병원은 아베이(Abyei) 특별 행정구역에서 2차 의료를 제공하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응급 수술, 산부인과, 신생아 지원, HIV/AIDS·결핵 치료, 그 외 뱀독 등 소외질환 치료를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밖에도 병원 건물 보수·확장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9,806명의 환자가 입원했고 그중 2,162명은 영양실조

치료식 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여러 외진 마을에서 말라리아 검사·치료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했고, 지역사회 활동단원들의 지원 속에 101,831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마욘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성·생식 보건 서비스를 포함해 1차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총 53,346회의 외래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곡 병원에서 특수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은 상태를 안정시켜 급급차로 이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평소에는 3시간 걸리는 이 거리도 위기에는 최대 8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또한 에티오피아 국경 인근 도시 아코보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의료 접근성이 극도로 제한된 외진 지역으로 지난 수년간 분쟁과 피난 속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7년 후반 국경없는의사회 이동 팀들은 배와 차를 타고 마을 곳곳을 두루 다니며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국경없는의사회는 키에르 마



간호사와 조산사가 이동 진료소에서 임신한 환자를 검진하고 있다. ©Frederic NOY








종글레이 주, 배로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국경없는의사회 이동 진료팀이 향하고 있다. ©Frederic NOY/COSMOS

을 근처에 영구 의료 시설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잠재적 질병 창궐에 대비하고 실제 발병과 그에 따른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대응하는 것은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예로 9월과 10월 국경없는의사회는 남수단 수도 주바에서 보건부와 협력해 경구용 콜레라 백신 접종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캠페인 기간 중 고정 및 이동 진료소에서 총 195,965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2017년 콩고민주공화국 활동

-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후원금 내역
738,361,704원
- 
구호 활동가
2,881명
- 
활동 계기
무력 분쟁, 국내 실항민, 전염병 창궐
- 
주요 활동
1차 의료 지원, 성·생식 보건, 정신건강 지원
- 
긴급 활동
홍역, 콜레라, 말라리아 창궐

만성적이고 복잡한 인도적 위기 한가운데 있는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은 국경없는의사회가 운영하는 최대 규모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17년 유엔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의 오랜 갈등과 그 외 지역에서 새롭게 불거진 비상사태들로 민주콩고의 국내 실항민 수가 410만 명에 달했다고 추산했습니다.

탕가니카 주에서는 분쟁이 심화되면서 지역민 50만 명이 피난을 떠났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3월에 탕가니카 주에 도착해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필요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칼레미 인근의 피난민들은 임시 캠프 혹은 학교 건물 안에서 현지 주민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들은 칼레미와 칸심바에서 긴급 지원을 실시해 물을 배급하고 화장실과 샤워 시설을 지었으며, 17개 장소에 이동 진료소를 배치해 기본 의료 지원과 정신건강 상담, 칼레미 병원으로의 이송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팀들은 또한 1차 의료 시설 8곳도 지원했습니다. 9월에는 2차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해 아동 20,600여 명에게 백신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탕가니카 주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4월에 마노노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보건부에 이양할 때까지, 지역병원 소아과와 여러 보건소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긴급 지원팀은 탕가니카 주 전역에서 활동하며 홍역·콜레라 발병에 대응했고 여러 지역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이 팀은 사례 관리를 돕고 보건부 직원들에게 훈련을 제공했으며, 콜레라 치료센터를 세우고 탕가니카 주의 여러 보건 구역에 의료품을 수송할 수 있도록 보건부를 지원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북동부 이투리 주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맘바사에 위치한 보건소 6곳을 계속 지원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의료·심리 지원을 실시하고, 성 매개 감염병 환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에 국경없는의사회가 치료한 성폭력 피해자는 590명이었습니다. 또한 보건 홍보 활동도 실시했습니다.

남수단·우간다 국경과 인접한 아디(Adi)에서는 이동 진료소를 배치해 카카바·울렌데레 마을 주민과 난민 모두를 지원했습니다. 이동 진료팀은 1차 의료와 정신건강 지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심리 지원, 병원 이송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27,900여 회의 외래진료와 1,269건의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 밖에도 간단한 말라리아, 설사 질환 치료를 위해 여러 마을에 지역사회 지원처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투리 주 게티에서 11년간 활동한 국경없는의사회는 마지막 남은 활동들을 보건부에 이양했습니다. 이는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고, 650차례의 교육을 통해 보건부 직원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6년 말까지 국경없는의사회는 541,800회의 외래진료와 16,900건의 산후 진료를 실시했고, 환자 42,900명에게 입원 치료를 제공했으며 약 13,200회의 출산을 도왔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소아과, 여성 보건, 신생아, 응급 환자, 중환자 지원 외에도 예방접종 캠페인을 통해 전염병 예방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를 신설 또는 보수하는 등 지역병원 재건을 도왔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인접한 보가(Boga)에서 실시하던 활동도 보건부에 인계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보가에서 2년간 활동하며 병원 산부인과, 수술실, 응급실의 의료 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외진 곳에 위치한 보건소 4곳도 지원했습니다.

이투리·탕가니카·오트-우엘레·바스-우엘레 주의 보건 경계 태세를 살피고 있는 긴급 대응팀은 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전염병, 분쟁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6천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응팀의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의사가 아동 환자의 말라리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Vincenzo Livieri

키르기스스탄 Kyrgyzstan



국경없는의사회 의사와 현지 보건부 의사가 결핵 환자의 엑스레이를 판독하고 있다. ©Joosarang Lee/MSF

2017년 키르기스스탄 활동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후원금 내역
492,241,136원

활동 계기
전염병 창궐

구호 활동가
105명

주요 활동
결핵 치료, 1차 의료 지원

국경없는의사회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약제내성 결핵(DR-TB) 환자들을 지원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존 약제내성 결핵 치료는 최대 2년간 받아야 하는 데다 심각한 부작용까지 뒤따르기 때문에 치료를 완료하지 못하는 환자 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약제내성 결핵 치료를 분산시켜 질병 관리를 개선하고 환자들이 치료를 끝까지 받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도 특히 결핵 감염 비율이 높은 카라-수 구역에서 국경없는 의사회는 보건부와 협력해 약제내성 결핵 환자들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한편, 환자들이 병원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상 40개를 갖춘 카라-수 병원을 지원해 중증 환자들은 입원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환자들은 결핵약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비롯해서 결핵과 관련된 포괄적인 치료도 받았습니다. 또한 환자들에게 사회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 힘든 결핵 치료를 계속 이어가도록 도왔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4월에 'endTB' 관찰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약 2종 (베다퀼린, 델라마니드)을 사용해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XDR-TB)' 혹은 '광 범위 약제내성 이전 단계의 결핵(pre-XDR-TB)'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치료하 기 시작했습니다.


바트켄 주의 아이다르켄 지역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보건부를 도와 비감염성 질환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동 진료소를 운영해 모자 보건 서비스 개선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편 국경없는의사회 1개 팀은 중금속 오염이 공중보건에 끼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카라-수 병원에서는 혈액 검사가 이루어진다. ©Maxime Fossat


미얀마 Myanmar

2017년 미얀마 활동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후원금 내역
492,241,135원

 구호 활동가
1,234명

 활동 계기
전염병 창궐, 의료 사각지대

 주요 활동
HIV/AIDS, 결핵, C형 간염 치료, 1차 의료 지원

2017년 미얀마에서는 무력 분쟁, 피난, 공동체 간의 긴장, 국가 부재 상태 등이 벌어져 상당한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구호 단체들의 접근이 거부되면서 의료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8월에 라카인 주 경찰초소를 겨냥한 공격이 벌어지자 정부군은 과도한 보안 작전으로 응했습니다. 그러자 라카인 주에서는 참혹한 인도적 상황이 벌어졌고, 연말까지 대부분 로힝야족인 66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했습니다. 국제 활동가들의 접근이 금지되고 의료 활동 권한도 제한적이었지만, 국경없는의사

회는 지속적으로 당국과 연락을 취해 남아 있는 지역민들에게 응급·비응급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이후 9월에 국경없는의사회는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허락해 줄 것을 미얀마 정부에게 요청했습니다. 연말까지도 국경없는의사회가 공식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로힝야족은 계속해서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탈출했고, 라카인주에서 대응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국제 단체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악화되고 국제 활동가들의 접근 확보가 불가능해지면서 와(Wa) 특별지역2에서 진행하던 의료 활동은 2017년 중반에 종료되었습니다. 활동을 마치기 전까지 국경없는의사회는 고정 진료소와 이동 진료소를 통해 2,438회가 넘는 외래진료를 실시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국경없는의사회는 1차 의료와 보건 홍보에 초점을 맞춰 나가(Naga) 지역에서 새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미얀마에서도 가장 외진 지역 중 하나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다웨이, 타닌타리 지역에서도 꾸준히 진료소를 운영해 HIV 분산 치료를 실시하는 국립병원들을 지원했습니다. 타닌타리 지역에서는 모든 HIV 환자에게 바이러스 수치 검사를 제공했고 HIV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했습니다. 또한 결핵, C형 간염 환자들에게도 필요한 의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미얀마 양곤의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에서 결핵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Alessandro Penso/MAPS


수단 Sudan


2017년 수단 활동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후원금 내역
323,012,133원

 구호 활동가
666명

 활동 계기
의료 사각지대, 전염병 창궐

 주요 활동
**1차 의료지원,
내장 리슈마니아증**

 긴급 활동
급성 설사, 홍역 창궐

수단 내 피난민 수가 25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수단의 인도적 필요사항은 매우 높습니다. 남수단 난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데다 수단은 유럽으로 향하는 망명 신청자들이 거쳐 가는 루트에 속

하기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하며 2016년 8월 이후로는 급성 설사 발병이 계속돼, 보고된 환자 수가 3만 명이 넘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날로 심화되는 생필품 부족 속에 인도적 결과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인도주의 단체들의 접근성은 나아졌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도 새 프로젝트 2개를 열었고 그 밖에 여러 평가 활동도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트 다르푸르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카리오 난민캠프의 남수단 난민들에게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7월에는 현지 단체가 운영하던 1차 의료 센터를 넘겨받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했고, 9월에는 산부인과와 영양실조 안정화 센터를 포함한 입원 병동을 추가로 열기도 했습니다. 이 시설은 남수단 난민들과 카리오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난민캠프에 급성 설사가 창궐하자 거의 동시에 대응 활동이 시작되어 환자 300여 명이 국경없는의사회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12월에는 홍역 예방 접종 캠페인을 통해 아동 19,000여 명이 접종

택을 받았는데 이때 지역사회 보건단원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웨스트 다르푸르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4월부터 크린딩 캠프의 피난 아동들을 대상으로 소아과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외래 진료와 안정화 지원처 활동도 같은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급성 설사 발병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모르네이 난민캠프에서 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보건부 활동을 도왔습니다. 보건부 직원들을 위해 교육을 기획하고 여러 의료 시설에 의약품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부터 국경없는의사회는 게다레프 주에서 내장 리슈마니아증(kala azar)에 더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타바라크 알라 병원의 내장 리슈마니아증 치료센터를 지원하고, 수단 정부 포럼(국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 등)에 참석했으며, 활동 연구를 실시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연계해 활동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고 있는 수단 지역 주민. ©MSF

시리아 Syria



27세의 모하메드는 돌아갈 집을 확인하려 갔다가 폭발물이 터져 크게 다쳤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절단이 필요했고, 오른쪽 팔과 눈에 부상을 당했다. ©Eddy Van Wessel

2017년 시리아 활동

-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후원금 내역
323,012,133원
- 
구호 활동가
773명
- 
활동 계기
무력 분쟁, 국내 실향민
- 
주요 활동
1차 의료 지원, 성·생식 보건

7년간 위기가 계속된 시리아 곳곳에서 민간인들의 큰 피해가 있었고, 현재 수백만 명에게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참한 생활 여건과 무차별적 폭력을 피해 시리아인들은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동구타 등의 지역에서는 몇 주 혹은 몇 달간 무차별한 폭격이 벌어지면서 지역민들이 식량, 의료 등 필수품도 없이 고립 지역에 갇혀 있었습니다.

2017년 시리아 북동부의 라카, 데이르예조르 주에서는 군사 공격이 벌어져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의료 기반시설도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데이르예조르 주에서는 시리아 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 이동이 있었습니다. 약 255,000명의 지역민들이 1년 사이에 평균 3차례나 피난을 떠났다고 합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시리아 북동부 전투는 잦아 들었지만 민간인들의 안전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

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피난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미폭발 전쟁 잔해, 지뢰, 위장 폭탄 수천 개가 깔린 시내와 집들이었습니다. 찻주전자, 베개, 냉장고 등 일반 가정용품에까지 손이 닿으면 폭발하는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리아 북동부에서 2차 의료 지원에 격차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한 국경없는의사회는 알-하사케의 버려진 병원을 재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모습을 다시 찾은 병원에서 지역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양질의 응급 서비스와 수술을 제공했습니다. 라카, 알-하사케, 데이르예조르 주 사람들이 주요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 이 병원 수술실에서는 총 563회의 수술이 진행되었고, 수술 대상자 중에는 외상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11월부터 연말까지 라카와 데이르예조르에서 벌어진 위장 폭탄, 지뢰 폭발, 총상, 공습으로 부상을 입은 환자 총 295명이 입원했습니다.

수술 지원과 더불어, 전쟁 부상자, 화상 환자를 중심으로 심리적 서비스도 지원했습니다. 입원 병동은 격리치료실 2곳, 물리치료실(타 기관 운영) 등 병상 33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4시간 진단검사실, 혈액 은행, 진단방사선실(엑스레이)을 관리합니다. 이 외에도 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한 이송 서비스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밖에 국경없는의사회는 두 차례의 대규모 사상자 유입 때에도 대응했습니다.

전투를 피해 집을 떠난 국내 실향민들이 머무는 여러 캠프에서는 이동 진료소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로써 국경없는의사회는 비감염성 질환(당뇨·고혈압 등) 환자,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환자, 성·생식 보건 지원이 필요한 환자 등을 지원하며 총 15,219회의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몇몇 캠프에서는 식수 위생 기반시설도 강화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또한 알-하사케 주 내의 다른 지역민들도 질 좋은 무상 의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1차 의료센터에서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산부인과 병동에서는 합병증이 없는 임산부들에게 모자 서비스를 제공했고, 외래진료가 이루어지는 진료소 2곳에서 비감염성 질환 치료, 성·생식 보건 지원, 정신건강 지원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지원 속에 일반 진료 총 55,466회가 이루어졌고, 한 해 동안 비감염성 질환 환자 1,325명이 국경없는의사회 프로그램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방글라데시 Bangladesh



로힝야 난민들이 비를 맞으며 미얀마-방글라데시 국경을 넘고 있다. ©Antonio Faccilongo

2017년 방글라데시 활동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후원금 내역
133,949,020원

구호 활동가
529명

활동 계기
폭력, 난민, 의료 사각지대, 전염병 창궐

주요 활동
1차 의료 지원, 성·생식 보건, 정신건강 지원

2017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방글라데시의 취약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의료를 제공하고, 미얀마에서 온 대규모 로힝야 난민에 대응하기 위해 활동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콕스 바자르에서 로힝야 난민 지원하기

8월 25일부터 라카인 주의 로힝야족을 겨냥해 미얀마군이 대대적인 폭력을 일으킨 결과 66만여 명이 미얀마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로 피신했고, 2017년 말 방글라데시의 로힝야족 난민

수는 83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산사태와 홍수에 취약하고 매우 과밀한 정착촌 내의 위태로운 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곳은 위생 상태가 열악하고 깨끗한 식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크게 늘어난 의료적 필요에 대응해 콕스 바자르 활동 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2017년 말 국경없는의사회는 보건지소 19곳, 1차 의료센터 3곳, 입원 시설 4곳을 운영했습니다. 7월~12월에 국경없는의사회가 진료한 1일 환자 수는

약 2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환자들의 주된 질환은 기도 감염, 설사 질환, 유아 영양실조 등이었는데 이는 정착촌의 열악한 생활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병들입니다.

연말까지 홍역과 디프테리아 의심환자 수천 명이 치료를 위해 국경없는의사회 시설을 찾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들은 디프테리아 환자 2,624명을 치료했고 나아가 정착촌들을 대상으로 능동적인 사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사례를 확인하고 환자 가정의 거주자 수, 환자와의 또 다른 접촉 사례 등 여러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디프테리아 환자들과 접촉했던 사람들은 예방 차원의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의심환자 감시와 치료를 위해 쿠투팔롱 임시 정착촌 인근의 러버 가든을 포함해 여러 곳에 디프테리아 치료센터를 열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쿠투팔롱 기존 시설과 발루크할리의 신축 의료 시설에 병상을 늘렸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타스니마르콜라 정착촌에 마련한 병원(병상 50개)은 그 지역에서 입원 치료가 가능한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2017년 모이나르그나 임시 정착촌 인근에 개설 예정된 또 다른 입원 시설은 12월에 임시 디프테리아 치료센터(병상 85개) 역할을 했습니다.

콜레라 혹은 다른 설사 질환 발병에 대비해 국경없는의사회는 발루크할리, 하킴파라, 잠틀리, 운치파랑 등지에 치료소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식수 위생 활동도 확대했습니다. 2017년에는 콕스 바자르 북부·남부 정착촌 전역에 염소 처리된 물 8백만 리터를 공급하고 화장실 1,700여 개와 우물 170개를 설치했습니다. 이 밖에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은 위생 홍보 활동과 비누 배급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의 도착지와 경유지, 정착지에 팀을 파견해 새로 온 난민들이 안전한 식수와 적절한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힝야족의 예방접종을 향상을 위해 국경없는의사회는 방글라데시 보건가족복지부에도 협력했습니다. 12월 초 보건가족복지부가 홍역·풍진 예방접

종 캠페인을 완료할 때 국경없는의사회는 지역사회 동원과 부지 확보, 백신 물류 수송을 지원했습니다. 캠페인의 목표는 생후 6개월~15세 아동 33만 명에게 백신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캠페인 결과 쿠투팔롱에서 156,000여 명, 발루크할리에 41,000명이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8월 25일과 12월 31일 사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성·생식 보건 지원처에서 성폭력 피해자 120명을 치료했습니다. 환자 대다수(98명)는 강간 피해자였고 전체의 3분의 1은 18세 미만이었습니다.

12월 국경없는의사회는 방글라데시 난민 정착촌에서 실시한 여섯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8월 25일과 9월 24일 사이 미얀마 라카인 주에서 로힝야족 최소 9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고된 사망자의 71.7%가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고, 가장 적게 추산해도 6,700명이 살해 당했으며 여기에는 5세 미만 아동 730명도 포함되었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69.4%는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가옥 방화로 인한 사망은 8.8%, 구타로 인한 사망은 5%, 성폭력에 의한 사망은 2.6%, 지뢰로 인한 사망은 1%였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이 설문조사 결과는 로힝야족의 높은 사망률이 폭력에 기인한다는 데 대한 역학적 증거이며, 라카인 주에서 대량 살상이 일어났음을 시

사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로힝야족이 미얀마를 탈출하게 된 정황과 그들이 노출되었던 폭력 패턴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8월 25일 이후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난민들의 증언을 정기적으로 수집했습니다.

2017년 말에도 방글라데시로 향하는 로힝야족의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2018년에는 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상당 부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캄란기르차르 슬럼가

2017년 국경없는의사회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변두리에 위치한 캄란기르차르 슬럼가에서 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해 환자 6,996명을 치료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여성·소녀들에게 생식 보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 팀은 2017년 산전 진료 10,055회와 가족 계획 상담 4,371회를 실시하고 974회의 출산을 지원했습니다.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 400여 명을 치료하고 정신건강 상담 2,300여 회를 실시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쿠투팔롱 진료소 입원실. ©Antonio Faccilongo

나이지리아 Nigeria

2017년 나이지리아 활동

- ₩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후원금 내역
40,000,000원
- 구호 활동가
2,595명
- 🚩
 활동 계기
무력 분쟁, 국내 실항민
- 🏠
 주요 활동
1차 의료 지원, 성·생식 보건, 예방접종, 식수 위생 활동
- 🚨
 긴급 활동
말라리아, 홍역, 뇌수막염 창궐



모자 보건을 지원하는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이 초음파를 통해 진단하고 있다.
©Maro Verli/MSF

반군 무장단체와 군 사이의 분쟁에 휘말린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은 2017년에도 국경없는의사회의 우선순위였습니다.

2013년 이후 나이지리아 치안 상황은 무장단체의 공격과 정부의 대반란 작전 속에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북동부 보르노주에서는 230만여 명이 피난 생활을 했고, 그 외 250만 명은 카메룬·차드·니제르 등 주변국으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치안 불안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식량과 깨끗한 물도 거의 구하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보르노주 전체 의료 시설의 64%가 파괴되거나 훼손되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남은 의료 시설들도 의료진과 의약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보르노주에 고립된 피난민들과 취약한 지역사회의 시급한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곳은 매우 외진데다 상황도 몹시 불안정하기 때문에 구호 지원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위기 평가가 필요합니다.

카메룬 국경에 인접한 은갈라 캠프의 피난민 수는 2016년 이후 2배로 늘어 현재 6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외부 지원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경없는의사회는 집중치료실과 소아과 병동을 갖춘 입원 병동(병상 50개)에서 활동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415명의 환자들에게 입원 치료를 제공하고, 중증·중등도 급성 영양실조 환자들을 대상으로 1,390회의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월 들어 성·생식 보건(임신과 출산을 포함한)을 제공하기 시작해 총 5,086회의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9월 이후 위독한 환자들은 카메룬 쿠세리의 국경없는의사회 프로젝트로 이송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또한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환자들에게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소아마비, 결핵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4차례 계절성 말라리아 화학예방요법(SMC)을 실시해 총 51,742명분의 백신을 제공했습니다.

습지로 둘러싸인 도시 란(Rann)은 우기인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외부 세계와 단절됩니다. 란 주민 4만 명은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식수 위생 시설 접근도 불안정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가까스로 처음 란에 들어갔던 1월, 나이지리아 공군 제트기가 두 차례 폭격을 가해 최소 90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당시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들은 대피에 앞서 부상자를 치료하고 중환자들을 항공기로 이송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팀은 현지 상황을 평가한 뒤 2월에 활동을 재개했고, 이동 진료소를 운영해 정기적으로 란을 방문했으며 의료, 영양 검진, 보건 홍보, 식수 위생 지원 등을 실시했습니다. 7월 이후 국경없는의사회는 란에 상주할 팀을 배치해 활동을 늘려 말라리아, 영양실조, 그 외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환자 치료에 주력해 총 10,362회의 외래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이 지역은 1년 내내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국경없는의사회는 다수의 홍역 예방접종 캠페인을 기획했고, 이를 통해 아동 10,607명이 예방접종을 받고 34,654명이 계절성 말라리아 화학예방요법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은갈라 캠프 내 머물고 있는 국내 실향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ylvain Cherkaoui/COSMOS



나이지리아 반키의 무너진 건물 사이로 한 아이가 걷고 있다. ©Sylvain Cherkaoui/COSMOS

카메룬 국경에 위치한 도시 반키(Banki)에서 국경없는의사회는 피난민을 대상으로 식수 위생 지원과 더불어 치료·예방 지원도 실시했으며 구호품도 배급했습니다. 일부 활동은 타 기관에 인계되었지만, 국경없는의사회의 지원 속에 연말까지 아동 11,926명이 홍역 백신을 받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또한 이동 진료소 활동을 통해 니제르 국경 인접 도시 다마스에서 홍역 및 뇌수막염 예방접종 캠페인을 실시했고 이로써 5세 미만 아동 28,197명이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온 편지

◆ 환자 이야기 ◆



파티마 | 시리아

“한밤중에 우리 집이 공격을 당해서 저는 유산탄 부상을 입었어요. 두 다리를 너무 심하게 다쳐 한쪽 다리는 결국 절단을 해야 했어요. 다리를 절단했다는 사실은 시리아 다라에 있는 야전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후에야 알았죠. 아이들을 다시 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장애가 있다는 생각에 무력감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은 한쪽 다리가 없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얼굴이었어요. 이제 겨우 18개월인 막내아들은 저를 두려워하더군요. 제가 늘 안아주고 먹여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저를 보던 날 아이는 제가 무서워서 이모한테 가더라고요. 시리아에서 절단 수술을 받은 뒤에는 국경 건너 람사(Ramtha)로 가서 몇 차례 수술을 더 받았어요. 지금은 의족 착용을 위해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제게는 9살, 8살, 1살 반 이렇게 세 아이가 있어요. 제가 이곳 요르단 람사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아이들은 여전히 시리아에 있어요. 빨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몸 상태도 좋아지고 나날이 더 기운도 나요. 하지만 스스로 걷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 만큼 기운을 회복한 뒤에 집에 돌아갈 거예요. 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느냐고 사람들이 묻는데요. 제 몸은 다리 한쪽 그 이상이에요. 아이들을 위해 저는 강한 엄마가 되어야 해요. 절망에 굴복할 수는 없어요. 부상 때문에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으니 반드시 돌아갈 거예요.”



카카 왈리 |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출신 카카 왈리(20세)는 3년 전부터 니제르로 피난해 있습니다. 카카는 디파 시내에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는데, 온몸에 열이 나고 몸살이 났어요. 그러더니 두 눈이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체티마리에 있는 인근 보건소에 갔다가 디파로 이송됐어요. 보름 동안 의사 선생님들의 치료를 받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심리적인 지지도 받았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아이를 잃었어요. E형 간염이 무엇인지 듣게 되었고, 어떻게 그 병을 예방할지도 들었어요. 손 씻기 같은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마을에서 여자들끼리 서로 이런 정보를 나눠요. 지금 저는 그때보다 한결 나아졌어요. 하지만 지금도 2주마다 진찰을 받으러 와서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해요.”



카마라 브롤라예 | 국경없는의사회 마취과의

“우리는 위독한 상태 속에 온 카카를 집중치료실에 입원시켰습니다. 카카는 혼수상태 속에 유산을 했고 이 때문에 심한 출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카카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보통 그런 환자들은 호흡 보조가 필요한데 디파에는 그런 의료 장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카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카카는 결국 이겨냈습니다. 저는 카카의 강인함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훨씬 나아진 모습을 보니 정말 흐뭇합니다.”

*환자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활동가 이야기 ◆



송경아 간호사 | 남수단

“제가 있었던 남수단 프로젝트에서는 의료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 3~4시간은 땀뻘한 햇볕을 받으며 걸어야 병원에 닿을 수가 있었습니다. 총상 환자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병원에 도착하면 살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12시간, 심지어 이틀에 걸쳐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치료받고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값진 일’이란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서로 문화와 언어가 다르지만,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생각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들과 일하게 되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행정가 | 우간다

“제가 다녀온 우간다 프로젝트는 남수단 피난민들에게 주로 의료와 식수 공급을 지원했습니다. 긴급 대응 프로젝트이다 보니, 첫 한 달 반 정도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밤도 랜턴을 켜놓고 먹어야 했습니다. 프로젝트 일원 전부가 함께 쉽 없이 일하고 고생을 하면서 최전방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정운 약사 | 우간다

“저는 우간다에 머물고 있는 남수단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구매하는 약품과 필요한 물품의 품질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어려움 끝에 현지에서 믿을 수 있는 조달처를 발굴해서 구호 현장에서 동료들이 ‘이제 이런 약이 있어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루스 콘데 간호사
| 예멘 콜레라 발병 대응

“첫 번째 환자의 검사 결과가 콜레라 양성으로 나왔을 때, 팀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일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홍역, 백일해도 발병했고 말라리아 유행도 한창이었거든요. 전쟁 속에 부상을 입은 많은 환자들도 치료 중이었습니다. 사실 예멘에는 콜레라가 퍼질 모든 조건이 충분했습니다. 2년 넘게 전쟁이 벌어지면서 의료 체계는 상당 부분 무너졌고, 얼마 남지 않은 의료진은 몇 달째 봉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피난 중인 가난한 사람들은 깨끗한 식수도 거의 구할 수 없고, 식량도 충분치 않고, 이미 다른 여러 질병들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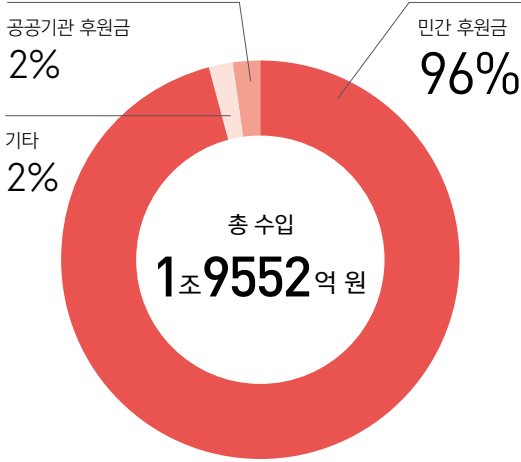
처음에 콜레라는 같은 지역에서 온 소수의 환자 사이에서 드문드문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5월 들어 하루 평균 20~30명의 환자들이 찾아왔고, 우리는 인근 학교에 병상 100개의 콜레라 치료센터를 세웠습니다. 6월 후반 들어 아브스 병원에는 콜레라로 의심되는 환자가 매일 400명도 넘게 들어왔습니다. 7월까지 콜레라 발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예멘 전역에서 총 269,000명이 넘습니다. 제때 알맞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은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들은 24시간 활동하며 사망률을 1~2%로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가 예멘에서 활동하지 않았다더라면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나타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멘에는 훨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인도주의 단체들은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 위기는 마지막 콜레라 환자가 치료를 받은 뒤에도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2017 재정 보고

국제 재정 보고

국제 재정 보고는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재무 기록입니다. 2017년 국제 재정 보고는 스위스 GAAP/RPC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회계법인 KPMG와 Ernst&Young의 공동 회계 감사를 받았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7년도 평균환율(1유로 = 1,276.39원)을 적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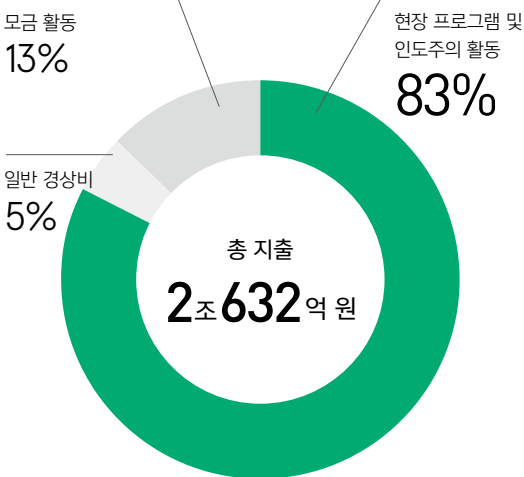
수입



국경없는의사회는 독립성을 지키고, 사회와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후원의 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전 세계 630만 기부자 및 민간 재단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민간 기부금은 전체 수입의 96%를 차지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7년에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위스 정부 등의 공공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구분	금액(억 원)	비율(%)
민간 후원금	18777	96%
공공기관 후원금	382	2%
기타	393	2%
총 수입	1955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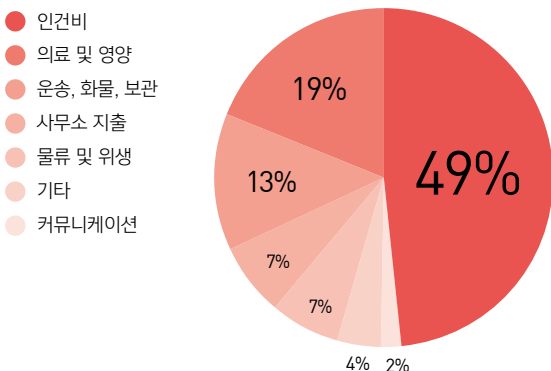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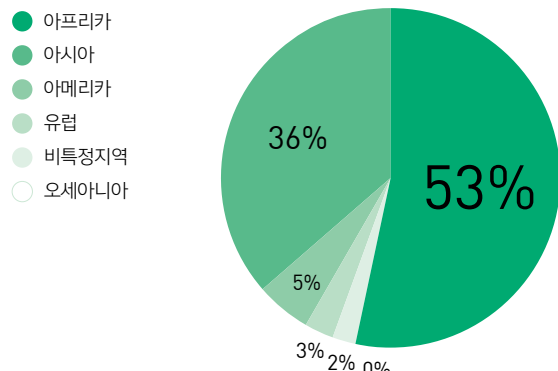
2017년 현장 프로그램 및 인도주의 활동 비용은 전체 지출에서 83%를 차지했습니다. 현장 프로그램 및 인도주의 활동은 본부가 현장에 바로 배정하는 의료 및 활동 지원비, 인식제고 활동비, 그 외 현장활동에 관련된 모든 비용입니다. 기타 지출에는 모금 활동비, 일반 경상비, 그리고 상업 활동에 부과되는 소득세로 구성됩니다. 지출은 전부 원가법에 따라 임금, 직접비, 간접비가 포함됩니다.

구분	금액(억 원)	비율(%)
현장 프로그램 및 인도주의 활동	17037	83%
구호 프로그램	13842	67%
프로그램 지원 활동	2429	12%
인식 제고 활동	591	3%
기타 인도주의 활동	175	1%
기타	3594	17%
모금 활동	2594	13%
일반 경상비	1001	5%
총 지출	20632	100%

프로그램 지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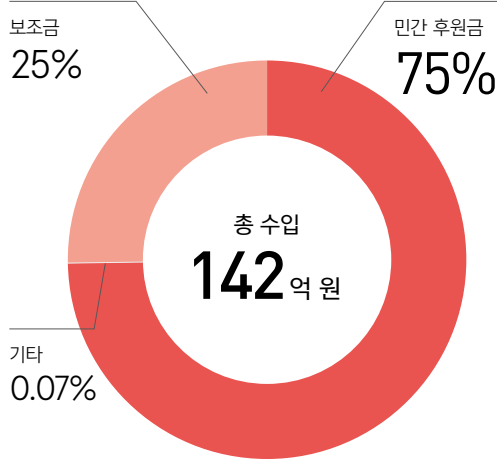
대륙별 지출 (단위: %)



국내 재정 보고

2017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약 106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71억 원을 10개국(이라크, 중앙공, 남수단, 민주콩고,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수단, 시리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구호 프로그램에 사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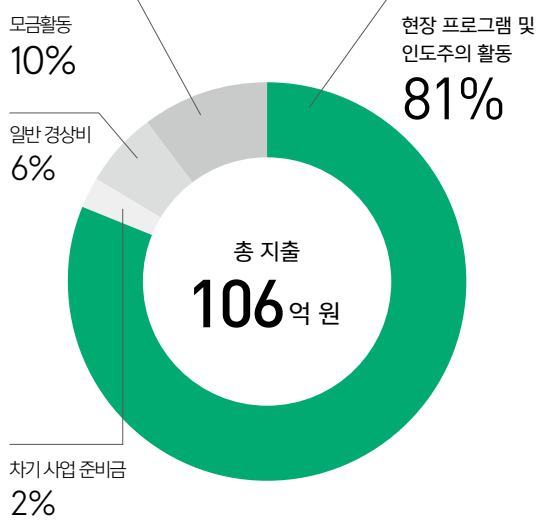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수입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의 수입은 시민들의 후원금과 타 지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신생 지부가 생길 경우 전 지부적인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하여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분	금액(원)	비율(%)
민간 후원금	10,618,575,310	75%
보조금	3,576,423,520	25%
기타	10,388,629	0.07%
총 수입	14,205,387,459	100%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후원금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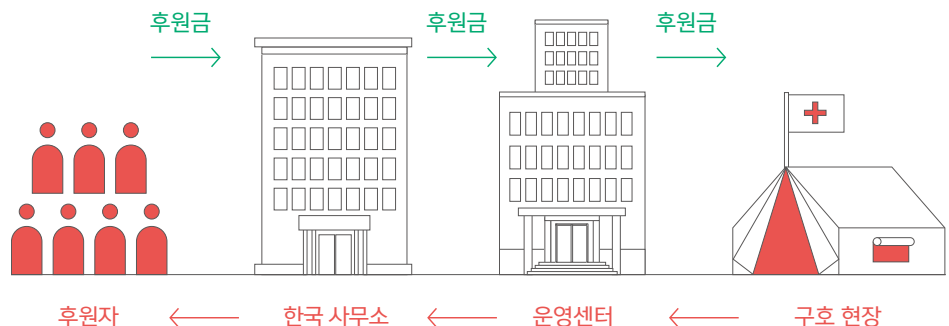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2017년 후원금 중 81%를 현장 프로그램 및 인도주의 활동에, 경상비에 6%, 모금활동비로 10%를 사용하였으며, 차기 사업 준비금으로 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금액(원)	비율(%)
현장 프로그램 및 인도주의 활동	이라크	1,831,587,222	81%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798,361,704	
	남수단	984,482,272	
	콩고민주공화국	738,361,704	
	키르기스스탄	492,241,136	
	미얀마	492,241,135	
	수단	323,012,133	
	시리아	323,012,133	
	방글라데시	133,949,020	
	나이지리아	40,000,000	
증언/인식제고 활동	1,315,785,432		
국제 구호활동가 채용 및 파견 제반 내용	144,455,308		
모금활동	1,065,792,727	10%	
일반 경상비	671,790,872	6%	
차기 사업 준비금	263,502,512	2%	
후원금 지출	10,618,575,310	100%	

보내주신 후원금은 어떻게 전달되나요?

한국 사무소에서 모금한 후원금은 구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경없는의사회 운영센터를 통해 현장에 전달됩니다.



활동 및 재정보고

현장 증언 및 구호 현황 보고

국내 후원 개발 활동

후원자 이야기



Q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군산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재학 중인 이준입니다.

Q 3년 넘게 국경없는의사회 정기 후원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꾸준히 후원을 해오고 계신 동기가 무엇인가요?

A 제 꿈은 전 세계인이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인으로 일할 수 있는 국제 NGO를 알아보면 중 국경없는의사회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류의 절망을 치료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 국경없는의사회는 정말 믿을 수 있고, 나아가 의료인이 되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정기 후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Q 2017년에는 국경없는의사회 자원봉사자로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봉사활동 경험은 어떠셨나요?

A 다른 자원봉사자들, 국경없는의사회 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재미있게 일하며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봉사 중 틈틈이 상영작들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책이나 기사로 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장감 있게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장 모습들을 보면서 '하루빨리 능력 있는 간호사가 되어서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다짐도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Q 후원을 망설이고 계신 또래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A 아아 이 글을 보신다면, 이미 후원에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만리타국의 한 번도 본 적 없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게 정말 고귀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응원합니다. "내 시간 쪼개서 열심히 번 돈, 나 쓰기 바쁘는데 어떻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후원을 시작하고 커피나 음료를 조금 줄인다면 큰 돈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거라 장담합니다!

스쿨펀드레이저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미래 나눔의 리더가 되어보세요!

국경없는의사회 스쿨펀드레이저 프로그램이란?

국경없는의사회의 스쿨펀드레이저는 학생들이 직접 친구들과, 동아리원들과 함께 교내 모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모금가로 활동하는 경험을 통해 미래 나눔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천여자고등학교



목포헤인여자고등학교



범어고등학교



오리초등학교

2017년 국경없는의사회 스쿨펀드레이저

금오여자고등학교

원경고등학교

부천여자고등학교

대전노은고등학교

거제제일고등학교

정심국제중학교

아름고등학교

목포헤인여자고등학교

김해수남고등학교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오리초등학교

범어고등학교

남해해성고등학교

소개 | www.msf.or.kr/school-fundraiser

문의 | 이메일 support@seoul.msf.org 전화 02-3703-3555

병원후원

국경 없이 생명을 살리는 국경없는의사회의
'후원병원'이 되어 주세요.

국경없는의사회 후원병원 프로그램이란?

국경없는의사회가 보다 많은 분쟁 지역과 의료 사각지대에서 안정적인 의료 구호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병원 명의로 후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에서 병원은 환자를 진찰,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춘 건물뿐 아니라 마을을 찾아다니며 진료하는 자동차, 수술실로도 운영되기도 하는 텐트 등을 포함합니다. 후원병원 프로그램은 한국의 병원들이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적 의료 구호 활동에 동참하고, '병원이 병원을 후원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2017년 국경없는의사회 후원병원

강남명인한의원	아이든소아청소년과
김상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아현연세정형외과
김성진한의원	양남경의원
김영순내과	양준호정형외과
대전 마디신경외과	청음이비인후과
매산힐스치과	청주하나이비인후과
모델라인의원	파티마이비인후과의원
민재활의학과	편안한 의원
바른본병원	푸른성모이비인후과
삼성치과	필라인의원
성모참플러스 정형외과	한나여성아이병원



*매월 30만 원 이상 정기후원 또는 연 300만 원 이상 일시후원에 한해 헌판과 배지를 드립니다.

소개 | www.msf.or.kr/hospital
문의 | 이메일 hospital@seoul.msf.org 전화 02-3703-3554

기업후원

국경없는의사회는 독립적이고 신속한 의료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 95% 이상의 재원을 민간 기부금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에도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해 주신 후원기업들에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유니시티코리아



유니시티코리아는 2017년 국경없는의사회의 모자보건 활동에 후원하고자 임직원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분쟁 지역 산모를 생각하며 걷는 '만보 걷기 약속' 캠페인을 진행하고, 후원금 5천만 원을 국경없는의사회에 전달했습니다.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금은 무력 분쟁, 전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알플러스



이알플러스는 나이저리아 긴급 구호 기금에 이어 두 번째로, 삶의 위기에 처한 로힝야 난민을 위해 긴급 구호 기금 2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알플러스의 후원금은 무력 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촌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로힝야 난민들의 의료 지원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었습니다.

트위치코리아



트위치코리아는 트위치 스트리머 '뽕뽕뽕'이 전국을 자전거로 횡단한 기부대장정 프로젝트를 통해 1천 1백만 원의 후원금을 국경없는의사회에 전달하였습니다. 트위치코리아의 후원금은 전 세계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었습니다.

소개 | www.msf.or.kr/corporate
문의 | 이메일 corporate@seoul.msf.org 전화 02-3703-3573

국내 커뮤니케이션 활동

국경없는영화제 2017 개최



국경없는의사회는 12월 1~3일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처음으로 ‘국경없는영화제 2017’을 개최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분쟁, 전염병 등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들과 이들을 치료하는 단체의 활동상을 담은 4편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었고, 영화 감독, 구호 활동가와 함께하는 현장 토크가 5차례 진행되었습니다. 9회 상영 중 7회차가 매진되었고, 1,097명의 관객(좌석 점유율 91.6%)이 영화제를 찾았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미니체험관



국경없는의사회는 개소 5주년을 맞아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일산, 여주에서 미니체험관 전시를 열었습니다. 구호 활동가의 가이드 투어와 함께, 1/2 사이즈로 축소된 실제 구호 텐트 및 구호 물품 체험 공간에서는 분쟁, 난민, 전염병을 주제로 국경없는의사회의 구호 활동이 소개되었습니다. 전시에는 총 5,3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구호 활동가 채용 웨비나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2017년에 두 차례 구호 활동가 채용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www.msf.or.kr/webinar



1회 국경없는의사회 소개 및 채용 절차 | 구호 활동 분야 및 현장 치안 상황을 비롯한 국경없는의사회 현장활동의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채용 절차와 지역 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회 마취과의 | 구호 현장에서 마취과의의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 마취과의 이효민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활동

Facebook
122,710 팔로워

Instagram
5,196 팔로워

Twitter
3,234 팔로워

5주년 비디오 캠페인
 위급한 상황에 의사가 도와달라고 한다면



조회수 1,501,370 | 공감 22,303

국경없는의사회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그룹 딩고(Dingo)와 함께 의료 구호 활동을 간접 경험하도록 하는 비디오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의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실험 카메라를 통해, 의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의료지원을 쉽게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단편 애니메이션
 ‘미안해요, 제가 물에 빠져서’ 상영



지중해에서 물에 빠져 숨진 난민을 주제로 국경없는의사회가 제작한 단편 애니메이션 ‘미안해요, 제가 물에 빠져서(Sorry, I drowned)’가 상영작으로 선정되어 제9회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와 제19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언론 보도

- 4월 | 시사인 중앙아시아 결핵 르포 “약 두 알 값이 한 달 월급인 나라”
- 5월 | 한겨레 기고문 “폭격 당하는 병원과 환자”
- 7월 |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시니어, 공익을 만나다] “구호 활동가로 제2의 인생 맞이했어요”
- 9월 | 한국일보 연재(5) [세계의 분쟁지역] “고향만은 가지 않겠다”...‘실패한 국가’ 소말리아 난민들
- 10월 |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폐렴 백신 있는데, 왜 매년 100만 명이나 목숨을 잃을까요?”
- 11월 | 한국일보 국제회장 조앤 리우 인터뷰 “분쟁지 의료시설 계속 공격 땀 절대 침묵하지 않겠다”
- 12월 | CBS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총상 입고도 2,3일 걸어진 환자 치료... 보람 매우 커”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이 아동 환자의 콜레라 증상을 확인하고 있다. ©Marta Soszynska/MSF



국경없는의사회는 1971년 의사와 기자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인도주의 지원에는 정부,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개입이 없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국경없는의사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윤리와 공정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이 원칙들은 인종, 종교,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선도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인정받아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